

在日濟州僑胞：그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과 階層構造

申 幸 激*

目	次
I. 序 論	IV. 階層構造의 樣相
II. 在日濟州僑胞社會의 生成	V. 階層要因間的 關係와 階層別 少數集團意識
III.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과 少數集團意識	VI. 結 論

I. 序 論

在日 韓國僑胞들은 日本內의 가장 큰 少數民族集團으로 存在한다.

少數集團 (*minority group*) 은 어느 社會에나 存在하기 마련이고 그 形成 來歷은 相異하겠지만 그 社會의 支配集團 (*majority group*) 으로부터 差別 的인 待遇를 받는 地位인 점에 있어서는 서로 같다. 특히 在日 韓國人인 경우는 韓·日 兩國間的 歷史的 關係와 日本 特有的 文化的 性格 때문에 보다 큰 差別的 狀況 속에 生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日本文化의 特徵에 대해서는 Ruth Benedict 여사의 「菊花와 칼」¹⁾ 에서 적절히 論議된 바 있다. 베네딕트 여사는 日本人들의 퍼스낼리티를 면밀히 검토 分析함으로써 日本文化가 ‘菊花’ 라는 溫和의 측면과 ‘칼’ 이

* 社會科學大學 社會學科 助教授

註 1) Ruth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1946.

라는 亂暴의 측면, 즉 두가지의 서로 相反되는 측면이 모순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戰時의 日本軍인들이 決死的으로 抗戰하고, 降伏을 軍人들의 최대의 수치로 여기다가(‘칼’의 측면) 일단 捕虜가 되었을 때는 美軍에게 성실하게 協力하게 된다는 점(‘국화’의 측면)이 그러하다. 이점은 降伏을 하여 捕虜가 되었어도 戰鬪에 最善을 다한 것을 名譽로 삼고, 美國軍人으로서의 矜持를 끝까지 잃지 않으려는 美國軍인과 現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文化類型을 ‘羞恥의 文化’(shame culture)라고 하거니와 李海英 教授는 그 文化理解의 大前提가 되고 있는 것은 ‘각자 자기에 적합한 자리 지키기’(앞의 베네딕트의 책 第3章의 題目)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日本人에 관한 어떠한 研究도 이른바 “各자가 自己에 적합한 자리를 지킨다”(taking one's proper station), 換言하면은 “身分에 相應하는” 또는 “分에 맞는” 行動과 생각을 해야지 그 “分에 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傳統的 日本規範의 理解없이는 不可能하다는 것이 베네딕트의 日本文化研究의 大前提를 이루고 있다」²⁾

말하자면 자기가 차지하는 位置에서의 位階秩序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美德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强者에 弱하고(菊花) 弱者에 强하다(칼)는 論理가 된다.

따라서 日本內에서 劣勢에 놓여 있는 少數集團에 대해서는 强者로서의 억압적 差別이 日本人의 文化的 生理로 存在하리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韓國人에 대해서는 과거 帝國主義 植民政策의 支配民族으로서의 우월감에서 더욱 그러하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日本人들의 態度는 在日 韓國人을 日本에 살고 있는 “가장 위험한 外國人”으로 취급하려는 경향³⁾과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在日 濟州僑胞의 問題를 少數集團의

2) 李海英, “羞恥의 文化”와 “罪의 文化” - 韓國文化類型의 研究를 위한 序章 - ” 知恩 邊時敏 博士 回甲記念論文集, 1978, p.6.

3) 金素雲, “日本武士道の 系譜”, 韓培浩(外), 現代日本の 解剖, 한진사, 1978, p.322.

次元에서 다루려는 本稿의 意義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선 在日 濟州僑胞社會의 生成背景을 考察하게 될 것이다.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은 그 生成背景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 生成背景과 社會調查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1)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과 그 意識의 問題를 論議하고 나서, (2) 그 社會階層構造를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에 유의하면서 考察하려 한다.

社會調查의 資料는 濟州新聞社의 후원으로 1979年 여름, 質問紙에 의한 郵送調查의 方法으로 얻은 것이다. 調查對象은 東京과 大阪에 거주하는 濟州新聞購讀者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濟州新聞支社를 통하여 접근하기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것은 사실상 在日 濟州僑胞가 이들 地域에 많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意義가 있다고 본다. 質問紙는 500매를 送付하였는데 130매를 회수하는데 그침으로써 資料의 零細性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資料上의 問題는 그 零細性 이외에도 調查節次上 直接統制를 못하였다는 점, 文獻資料가 貧弱하다는 점에도 있다. 따라서 本稿는 主題에 대한 序說의 性格의 論議가 될 것이다.

II. 在日 濟州僑胞社會의 生成

在日 濟州僑胞社會의 生成은 在日 韓國人僑胞社會 全體의 生成 脈絡에서 論議되어야 할 것이고, 在日 韓國人社會의 生成過程은 韓國人 渡日의 歷史的 契機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될 것이다.

在日 韓國人 渡日의 契機는 대략 다음과 같이 區分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⁴⁾

第一期：舊韓國時期(강화수호조약 ~ 韓日合邦)

第二期：日帝下 植民地收奪期(韓日合邦 ~ 太平洋戰爭 勃發)

4) 이 時期 區分과 그 說明은 주로, 金相賢, 在日韓國人, 檀谷學術研究院, 1969, pp. 26~31 및 田駿, 朝總聯研究,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pp. 11~17을 참고하였다.

第三期：日帝下 戰時體制期（太平洋戰爭期）

第一期는 自發性 渡日日期이다. 開化期에 처한 韓國人은 주로 新學問을 찾아 留學을 目的으로 渡日하였다.

이 時期는 또한 日本 商人이나 地主들이 韓國에 대한 侵蝕이 시작되던 時期이면서도 韓國은 獨立國家로서 그 外交官이 駐日公館에 駐在하던 시기이며 이때 勞動移住도 시작되었다. 당시 韓國人은 日本企業의 人夫募集에 應하여 渡日한 바 있는데 人夫募集 方法은 “日本人의 人夫募集者가 企業의 請負를 받아 現地에서 모집하여 渡航시키는 方法”⁵⁾이었다.

第二期에는 韓日合邦으로 인하여 韓國人의 渡日이 本格化되고 在日 韓國人數가 激增되었다. 當時 韓國人은 日本의 文化·經濟發展에 접해보고자 하는 目的으로 渡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보다 重要하고도 韓國人의 渡日을 급격화시킨 것은 日本의 植民政策이었다.

당시 日本은 近代의 土地所有制度의 確立이란 명목으로 소위 「土地調査事業」을 強行, 韓國의 土地를 收奪하였는데 「東洋拓殖」이란 機關이 그 活動에 큰 役割을 하였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런 事情으로 인하여 韓國 農村의 社會經濟의 秩序가 破壞되기 시작하였고 韓國農民 특히 小作農은 沒落, 流浪하기에 이르렀다.⁶⁾ 이들은 農村의 剩餘勞動力이 되어 勞動機會를 찾아 日本 특히 日本의 都市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런 傾向은 韓國農村의 絶對人口의 增加 때문에 加速化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時期의 韓國人의 渡日은 形式上 自發的인 듯하면서도 實質的으로 日帝 植民政策의 強制에 의한 것으로써 이 시기를 대체로 非自發的 渡日의 時期로 보아 좋을 것이다.

1930年代 東京府(1934年)와 京都市(1935年)가 실시한 在日 韓國人에 대한 渡日理由 앙케트調査를 보면 다음 <表1>과 같다.

이 <表1>에서 보면 당시 在日 韓國人의 渡日動機는 주로 勞動機會를 찾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생활난」, 「돈벌이」, 「求職」, 「勞動」등은 모두 勞動機會를 얻고자 하는 目的에 해당한다. 한편 당시 渡日

5) 田殿, 前掲書, p.13.

6) 慎鍾廈, “日帝下の「朝鮮土地調査事業」과 農民의 耕作權·開墾權·入會權”, 朝鮮土地調査事業研究, 韓國研究院, 1979. pp.258~298 참조

者 중에는 日本의 發展된 文化와 經濟狀態에 接해 보고자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東京의 경우 「면학」(11.79%) 京都의 경우 「면학」(1.4%) 「일본 동경」(9.1%) 및 「생활 향상」(4.8%) 등은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생각컨대 「면학」, 「일본 동경」, 「생활 향상」등은 모두 渡日 動機의 積極的 側面으로써 이 時期의 非自發的 渡日의 性格에 例外的인 것이고 在日 韓國人의 進取的인 面이기도 하다. 그 比率은 兩 地域에서 각각 11.79%와 13.9% 정도가 된다.

<表 1> 在日 韓國人의 渡日理由

地 域	東 京	京 都
면 학	11.79 %	1.4 %
생 활 난	26.28 %	34.1 %
돈 벌 이	41.62 %	14.1 %
求 職	12.29 %	31.2 %
노 동	6.00 %	(原表에 없는 項)
일 본 동 경	(原表에 없는 項)	9.1 %
생 활 향 상	(")	4.8 %
가 족 초 청	(")	4.9 %
기 타	2.02 %	0.4 %

資料 : 東京府 社會課, 「在京朝鮮人勞動者の現況」, 1963.9.18 및
 京都市 社會課, 「市内在住朝鮮出身者に於ける調査」, 1937, pp.39-40.
 (本稿에서는 田駿, 前掲書, p.19에서 종합 再引用하였음)

第三期는 日帝侵略戰爭이 擴大됨에 따라 日本이 韓國內에서 그들의 戰爭 遂行을 위한 物的·人的 供出을 強要하던 시기이다. 이 時期는 日本이 植民地內에서, (1) 戰爭 遂行을 위한 暴力的 強制徵發, (2) 戰時 獨點企業들의 超過利潤 확보를 위한 低賃金勞動力의 補充을 그 特徵으로 한다. 따라서 이 時期의 渡日은 強制 人力供出의 性格을 띠고 있다. 志願兵募集과 徵兵에

의한 人力動員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在日 韓國人の 絶對多數는 第二期와 第三期 즉, 1910年 韓日合邦에서 1945年 解放까지의 사이에, 日帝의 植民統治에 따른 經濟的 政治的 強制에 의하여 渡日한 者 또는 그 子女들이다.⁷⁾ 終戰 當時(1945年) 在日 韓國人數는 2,100,000명이나 되는데 그 88.4%인 1,855,669명이 바로 二·三 期에 渡日한 者들이라 한다.⁸⁾

在日 濟州僑胞의 경우도 이상과 같은 脈絡 속에서 대체로 1910年 韓日合邦 이후 日帝時代를 통하여 渡日定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좋겠다. 이런 事情은 1920年代 濟州-大阪間 直行航路가 開設되어 三個汽船會社의 淸吞 釜 汽船 三菱이 競爭就航하였던 것⁹⁾으로 보아 짐작이 된다.

1937年 當時 在日 韓國人을 本籍地別로 살펴보면 慶南北, 全南 등 三南地方出身이 壓倒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¹⁰⁾ 이러한 現象을 결국 渡日에 地理的 條件이 作用되어 있는 現象으로 보면 濟州道는 日本에 가까울 뿐 아니라 海上交通에 利點이 있음으로 하여 日本에의 人力移動에 有利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濟州島民의 상당수가 渡日하였을 것으로 보아 좋을 것 같다. 물론 濟州民의 渡日에 그 地理的 條件만이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濟州民의 渡日은 前述한 바의 在日 韓國人の 渡日背景이 大前提가 된 이외에, 첫째 濟州島는 그 自然的 條件이 營農에 不利하다는 것, 둘째 海女의 出稼 現象이 있었다는 것¹¹⁾ 등도 그 理由로 들 수 있겠다.

그리하여 1938年에, 在日 濟州僑胞의 數는 45,900여명에 이르렀고¹²⁾ 8.

7) 金相賢, 前掲書, p.23.

8) 田駿, 前掲書, p.41 참조, 210만명중 動員에 의한 渡日이 822,111명이고 그 외의 渡日 人口가 102만명, 自然增加人口가 25만명이 된다고 한다.

9) 朴用厚, 濟州島誌, 白映社, 1976, p.176; 夫萬根, 光復濟州 30年, 文潮社, 1975, p.425; 濟州年鑑, 1969, p.173.

10)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慶尙南道 出身者가 壓倒的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하였고 다음이 慶北, 全南 順으로 각각 15만명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기타 地方의 경우는 全北, 忠南, 慶北, 京畿 順인데 각각 4만~일만 명 정도이고 江原道와 그 以北地方에 있어서는 일만명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咸北 出身者가 제일 적었다고 한다. (田駿 前掲書, p.42)

11) 1938年 1,500명이 日本 各地로 出稼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濟州年鑑, 1969, p.271)

12) 上掲書, p.173.

15 解放 당시는 10 만을 넘어서게 되었다.¹³⁾ 이 두 時期에 있어서 在日 濟州民의 在日 韓國人에 대한 比率은 각각 6.2% (1937年 在日 韓國人數 735,700 여명에 대한 比率)와 4.8% (解放 당시 在日 韓國人數 210 만명에 대한 百分率)가 된다.

1945年 日本敗戰後에는 서로 相反하는 두 가지의 人口現象이 나타났다. 하나는 歸還現象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되는 渡日現象이다. 歸還現象은 1950年 11月 19日 聯合軍總司令部의 覺書에 의해 中斷될 때까지, 주로 正規 歸還의 形式으로 이어졌고¹⁴⁾ 그 후의 歸還者는 一般 外國人으로서 出國許可手續을 받아야 했다. 한편 1946年 이후 계속된 渡日現象은 주로 不法 渡日으로써 強制送還의 對象이 되었다. 1946~1966年 사이에 검거된 不法 渡日者만도 71,000 명이었다고 한다. 不法 渡日은 終戰直後인 1946年에 最高水準(19,107명)이었고 韓國動亂이 勃發한 1950년에 격감되었다가 動亂 중인 1951~1953年 사이에 다시 增加現象을 보인 후 계속 감소되었다.¹⁵⁾ 不法 渡日下에 검거된 者들 중 一部는 日本法務省의 特別許可를 얻어 日本在留가 認定되었다.¹⁶⁾

이 時期에는 濟州道의 경우 상당수의 道民들이 특히 4·3事件을 계기로한 社會的 政治的 混亂을 피하여 渡日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한편 渡日 濟州民의 一部는 公式的인 歸還措置(1950年 까지)와 強制送還(1950年 이후)으로 歸鄉하였을 것이나, 그 數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解放 당시 10 만이 넘는 在日 濟州僑胞의 數가 1953年 64,117 명이었다(表2 參照)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4 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線에서 歸還 및 送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3) 朴用厚, 前掲書, p.176.

14) 李瑜煥, 在日韓國人 60萬, 洋文社; 東京, 1971. 참조. 李는 이 著書에서 歸還의 形態에 公式措置에 따른 正規歸還과 財力있는 몇몇 者들의 個別的인 非正規歸還, 두 형태가 있다고 하고(同書, p.356), 同時期에 있어서 그 正規歸還의 數는 1,040,328 명이라 한다(p.359. <表 52 >)

15) 上掲書, pp.372~373.

16) 그 數는 自首者를 포함하여 8,279 명이고 그 外 不法殘留者로서 日本在留가 許可된 자가 6,678 명이 된다고 한다.(上掲書, p.174)

17) 夫萬根, 前掲書, p.425.

〈表2〉 在日僑胞 出身地別人口

年度別 道別	1938年(昭13年) 12月		1953年(昭28年) 3月		1964年(昭39年) 4月	
	人員數	%	人員數	%	人員數	%
慶南	300,163	37.5	196,844	36.6	221,698	38.3
慶北	184,651	23.1	131,926	24.5	145,743	25.3
全南	165,125	20.6	59,425	11.1	59,115	10.1
濟州	全南에 포함		64,117	11.9	86,490	15.0
小計	649,939	81.2	452,362	84.1	513,046	88.7
全北	48,858	6.1	16,202	3.0	12,439	2.2
忠南	28,751	3.6	13,209	2.5	12,918	2.2
忠北	22,524	2.8	11,054	2.1	11,272	2.0
京畿	14,433	1.8	6,914	1.3	5,243	0.9
서울	경기에 포함		경기에 포함		4,307	0.8
江原	8,312	1.0	5,772	1.1	5,715	1.0
小計	122,878	15.4	53,151	9.9	51,894	9.1
平南	7,824	1.0	2,382	0.4	1,948	0.3
平壤	5,884	0.7	2,707	0.5	279	0.04
平北	5,643	0.7	2,509	0.5	1,086	0.2
咸南	4,666	0.6	1,729	0.3	1,993	0.3
咸北	3,044	0.4	1,502	0.3	834	0.2
小計	27,061	3.4	10,829	2.0	6,040	1.0
其他	不明		21,412	3.9	7,592	1.2
總計	799,878	100.0	537,754	100.0	578,572	100.0

資料：日本法務省，「在留外國人統計」(1964年)

本稿에서는 金相賢，在日韓國人，(檀谷學術研究院，1969)에서 再引用.

그런데 1953년의 在日韓國人 總數는 537,754명이고 이에 대한 濟州僑胞의 比率이 11.9%라는 점에서 보면, (表2 參照) 이는 1938年 및 1950年의 比率(6.2%와 4.8%)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서 이에 따라 類推하면 濟州僑胞의 歸還과 送還은 相對的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濟州僑胞들의 日本在留性向이 強했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理由는 두 側面에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本道 自體의 興件 즉, 風土

的 惡條件에 따른 生活困難의 經驗이요¹⁸⁾ 그 둘은 相對的으로 日本生活의 有利한 經濟的 條件이다. 아마도 在日 濟州民들은 그들 本有의 勤勉·儉樸한 生活態度로 하여 당시의 民族的 差別下의 他國生活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生活의 安定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리라고 본다.

1980年代에 들어서 있는 現在의 在日 韓國人僑胞數가 얼마나 되는지는, 資料의 不足으로 알 수가 없다. 다만 近來의 日本政府記錄(外國人 登錄狀況)에 따르면 1970年末 現在 在日 韓國人僑胞數는 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¹⁹⁾

이들 在日 韓國僑胞들은 在日 外國人의 絕對多數(1967年末 現在 87.5%)²⁰⁾를 점하고 있으며 渡日動機上 당연한 현상이겠으나 東京, 大阪, 兵庫, 愛知 京都 등 주로 大都市에 居住하고 있다. 1966年末 居住地分布를 보면 大阪에 27.2%로 제일 많고 그 다음 東京(11.5%), 兵庫(10.1%), 愛知(8%), 京都(6.8%) 등으로 되어 있다.²¹⁾ 한편 在日 韓國人 중 日本出生者의 比率은 1964년 4월 현재 68.4%이고 나머지 약 30%는 韓國에서 出生 渡日한 者들로서 그 過半數(52.5%)가 1940年 이전에 渡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²²⁾

오늘날 在日 濟州僑胞의 數에 대해서는 客觀的인 言及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在日 韓國人數 60만명의 30% 水準에 이르는 것으로 推算하는 듯하다.²³⁾ 그러나 筆者가 接할 수 있었던 文獻資料의 記錄을 가지고 推定해보면 1970年 現在로 하여 그 數가 10만명에 未及하고 있지 않다가 생각

18) 濟州道 農耕風土의 惡條件과 이에 따른 生活上의 困難에 대해서는 姜景瑞, “風土의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濟大耽羅研究所,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主題 發表 要旨(1979. 10.19), pp.80~82 참조

19) 1970.2. 現在 총 608,489명이고 이중 외국인 등록란에 ‘韓國人’인 경우가 314,407명(51%), ‘朝鮮’인 경우가 294,082명(49%)라함(李瑜煥, 前掲書, p.364, <表 56> 참조)

20) 金相賢, 前掲書, p.40, <表 11> 참조

21) 李瑜煥, 前掲書, p.402. <圖 24>

22) 日本法務省, 「在日 外國人 人口統計」(1964) 참조(本稿에서는 上掲書, p.388에서 引用)

23) 夫萬根, 前掲書, p.426 참조. 道 僑民係의 推算도 그 數를 18만~20만으로 잡고 있었다.

된다.²⁴⁾ 1964年 現在로 在日 濟州僑胞의 數는 慶南·北에 이어 三位에 해당하며(表2 參照) 이는 各地 本土民의 數를 감안하여 생각할 때 대단히 큰 比重인 것이다.

在日 濟州僑胞들은 在日 韓國人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大阪, 東京, 神戶, 名古屋, 京都等 主로 都市圈에 대부분이 居住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大阪에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특히 大阪의 生野區와 東京의 荒川區는 교포 집단 부락이 形成되어 있을 정도라 한다.²⁵⁾ 이러한 在日 濟州僑胞의 都市集中現象은 都市地域이 就業機會 포착에 有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現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大阪에 많이 居住하고 있는 것은 日帝 당시 大阪에 특히 就業機會가 많았거나 定期航路開設 등의 交通便利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背景을 갖고 生成된 在日 濟州僑胞들 가운데는 오늘날 日本 出生의 二·三世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調査資料에 따르면 아직도 當代에 渡日한 僑胞들이 거의 半數에 이르고 있다.(表3 參照) 이들 當代에 渡日한 僑胞들 대부분은 解放前에 渡日한 자들인 것으로

〈表3〉 집안의 日本居住時期

① 조부이전 부터 (第四世 이상)	1 (0.8%)
② 조부때 부터 (第三世)	14 (10.8%)
③ 부모때 부터 (第二世)	51 (39.2%)
④ 본인 부터 (第一世)	60 (46.1%)
⑤ 무응답	4 (4.1%)
합 계	130 (100.0%)

24) 日本 法務省의 「在留外國人統計」에 의하면 1964年 在日 濟州僑胞들의 在日 韓國人에 대한 비율은 15.0%이고(〈表2〉참조) 森田芳夫의 論文 “戰後에 있어서의 在日 韓國人의 人口現象”에 따른 在日 韓國人의 1965年度 自然增加率은 1.6%이다.(李 瑜煥, 前掲書, p.376) 前者를 적용하면 在日 濟州僑胞의 人口는 91,273명(在日 韓國人 608,489명의 15%)이 되고 後者를 적용하면 95,131명(1964年의 86,490명을 기준하여 1970년까지 매년 1.6%씩 증가했다고 본 수치임)이 된다. 그리고 1964年에서 1970년까지의 在日 韓國人의 人口增加率 5.2%를 감안하면 90,989명이 된다. 물론 공식통계에 計上되어 있지 않은 人口도 있을것임으로 이 수치는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임을 부인치 않는다.

25) 夫萬根, 前掲書, p.426. 참조

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당시 日帝의 民族的 差別待遇 때문에 就業이나 賃金에 있어서는 물론 모든 生活分野에서 不利한 立場에 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日本內의 少數民族 集團으로서 下位의 社會階層을 形成하고 있었다고 짐작이 된다. 오늘날도 역시 그 少數集團으로서의 地位는 여전히하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의 表現이 소위 「日本國에 거주하는 大韓民國 國民의 法的 地位 및 處遇에 관한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協定」(1965年 6月 22日 체결)에 의해 주어진 法的 地位의 問題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生成背景을 지니고 있는 在日 濟州僑胞의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을 調査資料를 중심으로 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Ⅲ.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과 少數集團意識

少數集團(*minority group*)이란, Louis Wirth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그 육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속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 사회에 어떤 소수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에 대응하여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보다 큰 특권을 가진 지배집단이 존재함을 뜻한다. 소수집단의 지위는 사회생활에의 완전한 참여로 부터 배제되는 성격을 더불어 지니게 된다」²⁶⁾

이와 같이 少數集團의 問題는 그 多數集團(*dominant group*)과의 關係 즉 權力의 配分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數에 존재하지 않는다. 數的으로 적어서 少數集團인 것이 아니라 그 言語的·民族的·宗教的·文化的인 어느 次元에서 同一한 集團이 어떤 社會狀況 속에서 다른 集團의 支配下에 差別을 받고

26) G. E. Simpson & J. Milton Yinger, *Racial and Cultural Minorities*, Harper & Row, 1953, p.16에서 再引用.

있으면 少數集團이 되는 것이다. 數的으로는 多數인데 少數集團의 地位를 갖는 현상을 先進民族의 征服 내지 侵略過程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Maoris 족, 美國의 인디언 등이 그러하였고 日帝侵略 당시의 우리 民族이 그러하였다. 오늘날 남아프리카의 경우 3백만 정도의 白人이 1천 4백만 정도의 土人들을 支配하는 現象이 또 그러하다.²⁷⁾

在日 韓國人은 數的으로 물론 少數이고 移民의 형식에 의해서 形成된 少數集團이다. 少數集團 形成의 계기는 征服과 移民이고 移民의 경우에는 보통 自發性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겠으나 在日 僑胞集團은 그 生成過程에서도 알 수 있듯이 非自發的, 強制된 移民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그 渡日時期가 대부분 日本 帝國主義支配 當時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보다 分析的인 少數集團의 性格에 대해서는 Wagley 와 Harris 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1) 소수집단은 복합사회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 분파이다. (2) 소수집단은 그 사회의 지배적 분파에 의해 존경을 덜 받는 특성의 육체적 문화적 특성을 갖는다. (3) 소수집단은 그 구성원이 공유하는 특성에 의해 그리고 여기서 초래되는 특성의 무능력에 의해 결합된 자아의식 집단이다. (4) 소수집단의 성원 자격은 혈통의 법칙에 의해 전승되는데 혈통의 법칙은 명백한 어떤 문화적, 육체적 특성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세대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5) 소수집단의 사람들은 선택에 의해서진 필요에 의해서진 그 집단내에서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²⁸⁾

위의 引用에 있어서 (1)항은 억압된 被支配의 狀態, (2)항은 불리한 차별 대우, (3)항은 그러한 입장에 대한 正體意識 즉 少數集團意識을 말한다. 그리고 (4)항은 少數集團의 血統性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民族的 少數集團의 경우에는 重要한 特性이라 할 것이며 在日 韓國人集團이 이러한 특징

27) J. Milton Yinger, A Minority Group in American Society, McGraw-Hill, 1965, p.29.

28) Simpson & Yinger, 前掲書, p.17에서 再引用.

을 갖는 것은 물론이다. (5)항은 소수집단의 集團內婚的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在日 濟州道民들에게 이러한 특성이 농후함을 調查資料의 分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다음의 設問分析에서 보면 대부분의 應答者들은 韓國人을 配偶者로 선택하고자 하는 바 이는 적어도 意識水準의 次元에서 集團內婚的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設問〉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꼭 한국인과 하고 싶다	88명 (67.7%)
② 인종이나 피부색을 가리지 않겠다.	23명 (17.7%)
③ 일본인 하고 하고 싶다.	—
④ 백인하고 하고 싶다.	—
⑤ 모르겠다.	17명 (13.1%)
무응답	2명 (1.5%)

이와 같은 在日 濟州僑胞의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은 少數集團意識의 次元에서 더욱 明白하다.

少數集團意識은 少數集團成員들이 공유하는 特性에 대한 自我意識이요 自己集團 (*in-group*)에 대한 歸屬意識이다. 이는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을 뚜렷이 한다. 이는 階級意識이 階級으로서의 性格을 뚜렷이 하는 이치와 같다. 少數集團意識은 自己集團을 客觀的으로 存在하되 意識되지 않는 即自的 集團 (*in-itself group*)에서 對自的 集團 (*for-itself group*)으로만 안 든다.

이러한 少數集團意識의 發生根據를 우리는 集團外的 要因과 集團內的 要因 두 次元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集團外的 要因이라 함은 支配集團 (*majority group*)에 의한 逼迫과 差別 待遇인데 在日 韓國人의 경우는 日帝의 被支配民族으로서 설움 받던 歷史的 經驗에서 오는 民族感情이 이에 더해 진다. 그리고 內的 要因이라 함은 外部의 어떤 자극없이 內生的으로 나타난다. 自己 文化, 自己 祖國에 대한 鄉愁心이라던가 同病相隣의 우리感情 (*we-feeling*) 같은 것이 그것이다. 前者에서는 支配集團에 대한

對立行爲가, 後者에서는 祖國愛가 高揚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두개의 次元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分析的 敘述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두 次元의 要因들이 결합·보완되고 서로 上昇作用을 하면서 少數集團意識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在日 濟州僑胞들의 경우의 少數集團意識에 대하여는 앞에서 配偶者 選擇에 관련지어 암시한 바 있지만, 調查資料上的 다른 設問分析을 검토하여 보면 그 意識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子女問題에 대한 態度와 戰時 參與의 態度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調查對象者들에 대하여 그들의 子女問題가 무엇인지를 묻는 設問에 대하여, 아래 例示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母國語喪失의 問題」와 「日本人과의 差別待遇」 두 項目을 다른 項目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택하고 있다. 이는 在日 濟州民의 少數集團意識이 강함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設問〉 선생님 자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① 이성관계	3명 (2.3%)
② 일본인으로 부터의 차별대우	29명 (22.3%)
③ 모국어상실	53명 (40.7%)
④ 어른들에 대한 예절문제	8명 (6.1%)
⑤ 일본생활에의 부적응	4명 (3.1%)
⑥ 기타*	21명 (16.2%)
무응답	12명 (9.2%)

* 「기타」란; 예시된 답항외의 응답을 한 사람이 1명이고 나머지 20명중 ① ②③④항을 함께 택한 사람이 5명으로 제일 많으며, ②③④항을 택한 사람과 ③④항을 택한 사람이 각각 4명, ②③항을 택한 사람이 2명 등이다.

母國語 喪失의 경향을 문제로 삼는 것은 少數集團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言語의 重要性을 나타내는 것이며 日本人과의 差別待遇를 들고 있는 것은 支配集團인 日本人에 대한 종속적 地位를 나타내 준다. 日本人과의 差別待遇는 在日 同胞의 法的 地位의 問題가 居住上的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在日 濟州僑胞의 少數集團意識

은 다음에 例示된 바와 같이 北韓의 南侵時 態度에서도 엿볼 수 있다.

〈設問〉 선생님은 북한이 남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즉시 귀국하여 싸우겠다.	13명 (10.0%)
② 귀국하지는 않고 간접적인 지원을 하겠다.	92명 (70.8%)
③ 그대로 두고 보겠다.	10명 (7.7%)
④ 다른 나라로 가겠다.	—
⑤ 모르겠다.	13명 (10.0%)
무응답	2명 (1.5%)

이 設問 내용은 祖國이 危急한 事態에 처하여 보이는 祖國志向意識으로서 이러한 意識은 少數集團意識의 다른 表現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①항과 ②항은 그 強度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둘 모두 肯定的 祖國志向意識인 것이고, 따라서 在日 濟州僑胞 대부분은 祖國志向의 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방관적 태도(③항)는 7.7%에 그치고 있어서 즉시 귀국하여 參戰하겠다는 태도(①항)에 못미치고 있음은 그만큼 그 意識이 강렬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된다. 결국 在日 濟州僑胞는 少數集團으로서의 正體意識을 강렬하게 지니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在日 濟州僑胞의 少數集團意識은 그 世代에 따라 상당한 差異가 있다. (表4 參照) 따라서 「世代」는 少數集團意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된다. 少數集團意識의 世代差는 결국 僑胞社會의 歷史와 더불어 그 少數集團의 性格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예측케 해 주는 것으로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表4〉에서 4世 以上の 한 사람은 통제상 의미가 모호함으로 이를 제외하고 보면, 世代가 중첩될수록 자신이나 子女의 配偶者로 「꼭 한국인」을 택하려는 경향이 적고 「인종이나 피부색을 가리지 않겠다」는 태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在日 僑胞社會의 生成歷史가 오래 되어 가면 그 社會構成員들 즉 在日 僑胞의 後世들은 小集團意識이 감퇴할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보겠다. 이러한 경향은 戰時參與에 대한 태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表 4〉 世代別 配偶者選擧 態度

배우자 세대	쪽한국인	인종불문	일본인	백인	모르겠다	무응답	計
4세이상	1 (100.0)	-	-	-	-	-	1 (100.0)
3세	5 (35.7)	7 (50.0)	-	-	1 (7.1)	1 (7.1)	14 (100.0)
2세	32 (62.7)	8 (15.7)	-	-	10 (19.6)	1 (2.0)	51 (100.0)
1세	46 (76.7)	8 (13.3)	-	-	6 (10.0)	-	60 (100.0)
무응답	4 (100.0)	-	-	-	-	-	4 (100.0)
計	88 (67.7)	23 (17.7)	-	-	17 (13.1)	2 (1.5)	130 (100.0)

또 다른 측면에서 配偶者選擇에 關連하여 少數集團意識을 보면, 女子보다 男子 쪽이, 年齡이 많은 쪽이 적은 쪽보다 그 意識이 높고 成長地가 韓國인 쪽이 日本인 쪽보다, 都市인 경우가 農村인 경우보다 그 意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成長地에 關해서 다시 말하면 日本의 農村 → 日本의 都市 → 韓國의 農村 → 韓國의 都市 順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少數集團意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은 年齡이 낮은 경우나 世代數가 거듭될수록 즉, 1세에서 2세, 3세, 4세로 갈수록 점점 더 적은 比率의 사람들이 이러한 少數集團의 意識을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時間이 흐를수록 在日 僑胞社會의 후예들에게는 少數集團意識이 약화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在日 濟州僑胞社會는 少數集團의 類型上 同化(assimilation)의 方向으로 움직이는 集團으로 볼 수가 있다.²⁹⁾

日本은 多人口 國家로서는 異例의으로 그 國民들의 均質性이 높은 國家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變방에 거주하는 극소수 種族인 「아이누族」이 있고

29) Yinger, 前掲書, pp.30~32 참조. 여기서 Yinger는 少數集團의 類型을 assimilation, pluralism, secession, domination 등 넷으로 나누고 있다.

같은 日本人이면서도 差別待遇를 받는 「部落民」이 少數集團의 性格을 가지고 存在하는 것³⁰⁾이지만, 外國人으로서는 韓國人이 絕對多數(1967년 현재 外國人の 87%)를 차지하고 있는 事實³¹⁾은 在日僑胞가 유일한 少數民族集團의 性格을 띠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집중적인 差別待遇를 받을 가능성이 큼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支配集團은 少數集團에 의해 數的 威脅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일 소수집단은 지배집단의 모든 불안과 당황을 받아들여 흡수해야 하며 그의 모든 권력적 조작의 대상이 된다”³²⁾고 보기 때문이다.

IV. 階層構造의 樣相

社會階層을 規定하는 重要한 要因으로는 收入과 富, 教育水準, 職業 등 셋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세 要因은 서로 밀접한 關係가 있다. 즉, 收入이 많거나 富裕하면 教育의 機會가 좋아질 것이고, 높은 教育水準은 좋은 職業을 얻는데 有利한 條件인 것이며, 좋은 職業을 얻으면 收入도 좋아질 것이다. 뒤집어 말하여 低收入 → 教育 機會 不充分 · 衣食住 不良 → 就業機會 不利 · 非能率 → 低收入(貧困)이라는 「社會的 貧困의 惡循環」이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職業은 現代社會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階層變數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教育水準과 收入은 職業에 의해서 表現될 수 있기 때문이다.³³⁾ 都市에 있어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都市에 있어서는 그 職業形態가 異質的이며 多樣한 것이고 그것은 社會的 地位評價에 主要한 基準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在日 濟州僑胞의 階層構造를 論議함에 있어서는, 그 分析 對象 地域이 大都市圈이라는 점에서 職業을 階層分析의 主變數로 삼으려 한다.

職業의 分類方式은 一致된 바가 없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 本稿의 調査

30) 洪承勉, “日本家”, 韓培浩外, 前掲書, p.304 참조할 것.

31) 本稿의 II. 참조.

32) Simpson & Yinger, 前掲書, p.16.

33) 金泳漢, “都市社會의 職業 및 階層”, 中大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研究 12, 1977. p.11.

資料는 調査對象者들에게 그들의 職業이 무엇인지를 그 “직종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는 自由形設問項 (*open-ended question*)에 의하여 얻은 것이다. 이제 그 應答 內容들을 分類 檢討하기에 앞서서 먼저 日本社會의 階層構造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日本에 있어 보면³⁴⁾ 戰後 農地改革과 産業化의 進展에 따라 地主-小作人關係를 中心으로 하던 階層構造가 그 意義를 상실하게 되고 舊中間層은 몰락하였으며 官公署의 公務員, 企業의 事務職, 敎員 등 新中間層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被支配層이던 下層 勞働者層은 勞動組合運動을 통하여 그 地位가 向上되고 革新勞力으로 政治에도 關여하기에 이르렀다.³⁵⁾ 더 나아가서 福武 直은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敘述하고 있다.

「현대 일본의 계급구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가 계급을 정점으로 하여 1 할이 넘는 농민과 1 할에 못미치는 상점주나 서어비스업자가 주체가 되는 中間的 自營業主層과 2 할 정도의 봉급생활자층과 약간의 전문적 기술자등으로 이루어지는 新中間層 및 약 4 할 정도의 노동자층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³⁶⁾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 다음 <表 5>이다.

福武 直에 따르면 日本을 움직이는 支配層은 中小·零細企業主를 除外한 소수의 大企業을 장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소수 大企業은 企業總數의 0.2%에 이르지 못하면서도 全資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약 30%의 自營業主層에는 13%를 상회하는 農漁民層과 약 17%의 都市 自營業主層이 포함되어 있다. 都市 自營業主들 가운데는 소수 비교적 안정된 業主를 빼면 開廢業이 無常한 浮動層이 상당한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서 늘 轉落의 위험을 받고 있다. 勞働者層은 white collar 層과 blue collar 層으로 나누어 지는데 blue collar 層에서 보면 生産工場

34) 本稿에서 日本社會의 階層構造에 대한 論議는 主로 福武 直, 現代日本社會論 (東京大學出版會, 1980)의 內容을 참고하였다.

35) 上掲書, pp.10~11.

36) 上掲書, p.34.

〈表 5〉 日本의 階級構成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資本家階級	1.9	2.0	2.7	3.6	5.0	5.9
保安서비스從事者	0.9	1.1	1.1	1.2	1.2	1.4
自營業主層	58.9	53.2	45.7	38.3	34.8	29.4
農林漁業從事者	44.6	37.7	30.6	23.0	18.1	12.7
鑛工通運從事者	6.2	6.2	6.2	6.2	7.3	6.8
販賣從事者	6.2	7.0	6.2	5.9	5.5	5.2
서비스從事者	0.9	1.5	1.6	1.9	2.3	2.6
專門的 技術的 職業	1.0	0.9	1.0	1.2	1.6	2.1
勞働者 階級	38.2	43.6	50.5	56.9	59.0	63.3
봉급생활자층	11.9	12.5	14.2	17.0	18.3	21.3
生産的 勞働者	20.0	22.4	27.8	29.2	29.3	28.2
不生産的 勞働者	4.3	6.8	7.8	9.3	10.1	11.5
完全失業者	2.0	1.9	0.7	1.4	1.3	2.3

資料：福武 直，現代日本社會論，東京大學出版會，1980，p.33，表 9。

勞働者層의 增加는 둔화되는 傾向인데 대해서 販賣나 서어비스에 종사하는 勞働者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사회의 最下層은 零細 企業의 勞働者나 失業勞働者, 中高年齡層의 再就業者 등으로 形成되어 있는 데 이들 中에는 限界線上의 生活保護對象者層도 포함된다.³⁷⁾

在日 濟州同胞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의 調査資料, 130 개의 設問紙에 應答된 內容의 職業을 그대로 나열하고 이를 福武 直의 例에 따라 職業分類 해 보면 다음 〈表 6〉과 같다.

이 〈表 6〉에서 事務職의 경우는, 應答者의 心理的 側面을 고려하고 보면 精神勞働者 即, white collar 외에 肉體的 性格의 從業員 즉, blue collar 도 포함되어 있을 可能性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노동직과 구 별 짓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社長」이라고만 應答한 경우나 「自營業」이라고 하는 應答은 구체적으로 어떤 業種인지 알 수 없으나 兩者

37) 上掲書, pp. 34~37 참조.

〈表 6〉 在日 濟州僑胞의 職業事例와 分類

職 業 事 例 *	人 數	職 業 分 類	人 數	備 考
회사취체역사장	4	자본가 (기업인)	6	
아파트경영	2			
금속공업	1	수공업	14	
산달가공업	1			
양산제조업	1			
포제업	5			
봉제업	4			
양복가공업	1	판매서비스업	15	
정미소	1			
상점경영(상업)	6			
요식업	7	(자영업:業種未詳) 7		
遊技業	1			
금융업	1	전문. 기술직	4	
사장	3			
자영업	4			
의사	1			
목사	1	사무직 (봉급생활자)	30	
자유업	2			
단체직원	4	노무직	2	
사무원·회사원	25			
은행원 (단순노동)	1	(除外)		
민단직원	2			
주부	16			
무직	7	失業者	8	
(무응답)	2			
(무응답)	26			점원: 1. 가정부: 1 직업계층 분석상 의미 가 없으므로 제외함. 무직과 무응답 28명중 여자 5명, 고령자 5명 을 빼버리고 有收入者 10명은 기타직업으로분류 하고 난 수치가 8(명)임.

* 設問紙上的 應答 내용임

모두 自營業일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民團職員」은 事務職이긴 하나 이를 별도로 分類하는 理由는 設問紙 回收上的 便宜라는 姿意性이 介在되어 있을 可能性이 충분한 것이고 따라서 全體職業의 構成을 論議함에

있어서는 이를 「主婦」와 더불어 除外함이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無應答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有收入者(10명)는 職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타 職業으로 분리하고, 女子(5명)는 主婦에 준하여 除外함이 옳을 듯하다. 나머지 無應答者는 無職이거나 職業다운 職業을 갖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있어서 「無職」에 같이 묶어 생각함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그리하여 「無職」의 범주에 13명이 해당되는데 이 중에 61세 이상의 年齡層인 非經濟活動人口가 5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빼면 결국 應答者 중 8명이 失業者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在日 濟州僑胞의 職業을 再分類하고 日本의 職業構成과 비교하면 다음 <表7>과 같다.

이 比較表에서 日本의 경우는 全國値인데 대하여 濟州僑胞의 경우는 두개의 都市에 局限된 資料이므로 兩者를 그대로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으나 比較 自體의 意義는 충분하다고 보아 진다. 이 比較에서 보면 在日 濟州僑胞는 日本에 비하여 그 階層構造에 있어서, 첫째 自營業層이 많고 勞動者(被雇傭者)層은 적다는 것, 따라서 둘째, 新中間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舊中間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셋째, 失業者層이 많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在日 濟州僑胞의 階層構造는 日本의 경우에서 보아 대체로 舊中間層이 많은 舊時代의 階層構造의 性格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在日 濟州僑胞들이 被雇傭期會에 있어서 상당히 不利한 地位에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現象으로 볼 수 있겠다. 말하자면 少數集團으로서의 差別的 待遇의 결과가 이러한 階層構造에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應答者의 6.2%, 勞動力 人口의 8.3%가 失業者로 存在한다는 사실은 在日 濟州僑胞들 가운데는 그만큼 적지 않은 사람들이 浮浪의 最下社會層으로 存在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在日 濟州僑胞의 경우에 階層構造上 最上層에 해당하는 「資本家」(企業人)의 比重이 日本 全國値에 비하여 높은 것은 그만큼 僑胞들 가운데는 社會階層上 有利한 地位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本稿의 資料가 濟州新聞 購讀者를 대상으로 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社會的 地位가 높은 層이 보다 많이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음을 감

〈表 7〉 日本과 在日濟州僑胞의 職業類型 比較*

구분 직업분류	日本 % (全國)	在日僑胞 %** (都 市)	備 考
資 本 家	5.9	6.3 (6명)	企業人
保安서어비스직	1.4	—	
自 營 業	29.4	40.6 (39명)	
農 · 漁 業	12.7	—	} 구중간층
鑛 · 工 · 通運業	6.8	14.6 (14명)	
販 賣 職	5.2	} 15.6 (15명)	
서 어 비 스 職 (미 상)	2.6		
專 門 技 術 職	2.1	7.3 (7)	} { 자영업이긴 하나 그 구체적 직업내용이 미상인 경우 } 신중간층
勞 動 者	63.3	4.2 (4)	
보 급 생 활 자	21.3	} 33.3 (32)	} 신중간층
生 産 的 勞 動 者	28.2		
不 生 産 的 勞 動 者	11.5		
完 全 失 業 者	2.3	8.3 (8)***	
기 타 (미 상)	—	10.4 (10)	직업에 무응답자층 有收入者

* 日本의 경우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전국 범위의 1975년 자료인데 대해서 교포의 경우는 大都市에 국한된 1979년 조사 자료임

** 응답자층 계층 분석에 유의미한 96명에 대한 분석임 (응답된 직업중에서 민단직원과主婦, 그리고 無應答者의 여자와 61세 이상의 高齡者를 제외하였음)

*** 「無職+無應答者」에서 「有收入者+女子+ 61세이상의 高齡者」를 뺀 수치임.

안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資本家들 중에는 “稅法上 有利하기 때문에 零細한 個人業主가 會社組織을 취하고 會社役員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³⁸⁾ 고 보게 되면 僑胞企業人들 중에는 零細企業主가 또한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이점은 뒤에 提示되는 〈表 9〉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즉, 企業人

38) 福武 直, 前掲書, p.34.

中 100萬圓이상의 月所得者는 50%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在日 濟州僑胞의 職業上 階層狀況을 韓國 都市民의 그것과 比較해 보면(表8 參照)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無職인 者가 많다는 것, 둘째, 手工業者가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比率上 韓國 都市民의 경우의 5배에 달한다) 資本家(企業人)層이 다소 많은 比重을 차지한다는 것, 이에 대해서 셋째, 專門·技術職의 경우 한국 도시 수준의 $\frac{1}{3}$, 販賣·서어비스職은 $\frac{1}{2}$ 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불과하며, 事務職과 勞務職을 포함하는 勞動職의 경우는 다소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表 8> 韓國都市民과 在日僑胞의 職業類型 比較

職業分類	(A) 韓國의 都市*	(B) 在日 僑胞	B/A × 100
기업인	5.9	6.3	106.8
보안직	0.8	-	0
농업	3.4	-	0
수공업	2.5	14.6	584.0
판매·서어비스	27.4	15.6	56.9
전문·기술직	13.6	4.2	30.9
관리사무직	31.0	31.3	101.0
단순노무직	7.6	2.1	27.6
무직	5.7	8.3 **	145.6
기타	2.2	10.4 ***	(생략)

* 資料：金泳謨，“都市社會의 職業 및 階層構造”，中大社會事業學科，社會福祉研究，1978. pp.6-7의 內容을 再構成한 것임.

** 失業者

*** 職業未詳

대체로 말하여 在日 濟州僑胞는 韓國都市民에 비하여 小規模의 會社, 특히 手工業을 운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반면에 專門·技術職에 종사하는 者가 극히 적고, 販賣·서어비스職에 종사하는 者도 비교적 적다. 「화이트 칼라」層을 중심으로 한 新中間層이 적고 手工業者를 중심으로 한 舊中間層이

많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失業者의 비율도 높다. 그리하여 在日 濟州僑胞의 階層構造는 産業社會에 있어서 不利한 後進의 樣相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在日 濟州僑胞의 少數集團의 性格의 一面이 반영된 現象으로 보인다. 그런데 少數集團은 階層 上昇移動의 機會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면에서 카스트(caste)的 性格을 가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⁹⁾ 少數集團의 階層構造는 支配集團 階層構造 속에 差別的으로 存在해서 上昇移動에 어떤 限界를 갖게 된다.(예컨대, 같은 企業人이라 하더라도 少數集團의 企業人은 支配集團의 企業人 보다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在日 濟州僑胞의 階層構造는 전반적으로 보다 더 下向된 水準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階層要因間的 관계와 階層別 少數集團意識

오늘날 産業社會에 있어서 職業은 階層要因으로써 가장 重要한 것이기는 하나, 유일한 것은 아니다. 이미 言及한 바 있듯이 重要한 階層要因으로는 職業과 더불어 所得과 教育을 들 수 있는 것이다.

所得은 富에서 派生되는 것이면서도 富의 蓄積源으로써 人間의 生活程度 및 그 樣相을 決定해 주는 要因이 된다. 물론 外觀上의 生活樣相이 반드시 所得層의 差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⁴⁰⁾ 上位 所得層의 사람들은 下位 所得層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區別해 줄 수 있는 財貨나 用役을 購入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의 階層狀況을 差別的으로 外面化할 蓋然性이 存在한다. 階層意識을 階層狀況의 內面化라 한다면 生活樣相은 그 外面化라 할 것이다. 所得은 바로 이 階層狀況 外面化의 基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教育水準은 일반적으로 말하여 職業이나 所得水準에 크게 영향을 준다. 즉,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좋은 職業을 얻는데 有利하고, 높은 所得을 얻을 가능성을 크게 하여 준다. 오늘날 社會階層移動을 可能케 하는 가장 큰 要

39) 少數集團의 Caste的 性格에 대해서는 Yinger, 前掲書, pp.24~25 참조

40) Raymon Aron, La lutte de Classes; 李東烈(譯), 産業社會와 社會階層, 汎潮社 pp. 213~214 참고. Aron은 “전체적인 富가 증가하고 계층전체가 향상되면, 통계적으로 불평등의 실질적인 감소가 없이도 생활조건의 통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因이 教育이다. 여기에 教育機會의 均等이 重要視되는 理由가 있고, 下流層의 階層上昇의 欲求가 그들 子女에 대한 教育熱로 나타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정이 在日 濟州僑胞의 階層構造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자.

所得에 있어서 보면 (表9의 下辺「計」參照)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는 所得層은 19萬圓 이하의 低所得層(25.0%)이고 59萬圓 이하의 所得層은 過半數(56.3%)에 달한다. 그리고 60萬圓 以上 100萬圓 미만의 中間所得層은 3.1%에 불과해서 所得階層上 斷切的 現象, 말하자면 所得分配

〈表 9〉 職業階層別 所得

月所得 職業	19만圓 이하	20~39 만 원	40~59 만 원	60~79 만 원	80~99 만 원	100만圓 이상	무응답	計
企業人	—	—	1 (16.7)	1 (16.7)	—	3 (50.0)	1 (16.7)	6 (100.0)
手工業	6 (42.9)	2 (14.3)	1 (7.1)	—	—	2 (14.3)	3 (21.4)	14 (100.0)
商業 (販賣및 서비스)	—	2 (13.3)	5 (33.3)	—	—	4 (26.7)	4 (26.7)	15 (100.0)
自營業 (業種未 詳)	1 (14.3)	2 (28.6)	—	1 (14.3)	—	—	3 (42.9)	7 (100.0)
專門 技術職	—	1 (25.0)	1 (25.0)	—	—	2 (50.0)	—	4 (100.0)
事務 勞務職	17 (53.1)	5 (15.6)	4 (12.5)	—	—	—	6 (18.8)	32 (100.0)
其他 (職業未 詳)	—	4 (40.0)	2 (20.0)	—	1 (10.0)	3 (30.0)	—	10 (100.0)
無職 (失業者)	—	—	—	—	—	—	8 (100.0)	8 (100.0)
計	24 (25.0)	16 (16.7)	14 (14.6)	2 (2.1)	1 (1.0)	14 (14.6)	25 (26.0)	96 (100.0)

의 兩極化 現象을 보이고 있다.⁴¹⁾ 職業階層別로는 企業人과 專門 技術職 層이 높은 所得層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商業層이 비교적 所得水準이 높으며 事務·勞務職과 業種未詳의 自營業層은 비교적 낮은 所得層에 해당되고 있다. 手工業層에는 100萬圓 이상의 高所得者도 있으나(14.3%) 그들 대부분은 낮은 所得層에 몰려 있어서 手工業者의 所得階層上的 位置는 商業과 事務·勞務職의 中間에 있다고 보겠다.

所得水準과 職業形態를 綜合하여 在日 濟州僑胞의 階層構造를 要約해 보면 그것은 最上層에 企業人과 專門·技術職을, 그 밑에 商人層을 中間層으로 두고, 다시 그 밑에 手工業者層, 事務·勞務職의 順으로 이어지며, 失業者層을 그 最下層으로 하는 五分法的 階層構造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 教育水準에서 보면, 在日 濟州僑胞들은 대체로 그 教育水準이 높은 편이다. 勞動力 人口(本稿에서는 階層構造 分析對象 범위의 応答者) 만을 대상으로 하여 볼 때 專門學校 이상이 약 44%가 되고 國卒 이하의 水準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教育水準을 職業에 관련하여 보면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체로 보아 專門·技術職의 教育水準이 가장 높고 商業, 手工業 등 自營業層 보다 事務·勞務職의 教育水準이 높다. 專門·技術職에서 教育水準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며, 事務職의 경우는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들이 雇傭機會를 포착하는 데 유리한 데서 오는 귀결이라 하겠다. 이에 관련하여 失業者들 가운데 專門學校修學 이상의 上位教育層이 많은 것도 그들이 有利的한 就業機會를 노리고 다른 職業, 예컨대 自營業 같은 것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在日 韓國人에게는 그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 때문에 日本社會內에서의 有利的한 就業機會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생각할 만하다.

教育水準을 職業層別로 보았을 때, 未詳인 職을 제외하고 대체로 專門 技術職에 높은 教育水準의 層이 많고, 다음으로 失業者→事務·勞務職→

41) 이점은 在日 韓國人이 在日 定着期를 지나면서 나타난 現象이었다고 한다(田職, 前掲書, pp. 93~94 참조). 이런 현상은 在日 韓國人 사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10〉 職業別 教育水準

職 業	教育水準				
	국졸이하	중학이상 고졸이하	전문학교 이 상	무 응 답	計
企 業 人	1 (16.7)	2 (33.3)	2 (33.3)	1 (16.7)	6 (100.0)
手 工 業	1 (7.1)	11 (78.6)	2 (14.3)	—	14 (100.0)
商 業 (販賣·서어비스)	2 (13.3)	8 (53.3)	5 (33.3)	—	15 (100.0)
自 營 業 (業 種 未 詳)	3 (42.9)	—	4 (57.1)	—	7 (100.0)
專 門 · 技 術 職	—	1 (25.0)	3 (75.0)	—	4 (100.0)
事 務 · 勞 務 職	—	15 (46.9)	16 (50.0)	1 (3.1)	32 (100.0)
其 他(職業未詳)	2 (20.0)	3 (30.0)	5 (50.0)	—	10 (100.0)
無 職(失業者)	1 (12.5)	2 (25.0)	5 (62.5)	—	8 (100.0)
計	10 (10.4)	42 (43.8)	42 (43.8)	2 (2.1)	96 (100.0)

企業人 → 商業 → 手工業 順으로 그 教育水準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教育水準別 所得狀況을 보면 (表11 參照) 低教育水準인 國卒 이하의 경우, 100萬圓 이상의 높은 所得層이 많은 반면 低所得層도 많아서 兩極化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中間教育層은 다른 教育層에 비하여 낮은 所得層이 많다. 專門學校 이상의 높은 教育層은 다른 教育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中間所得層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教育水準이 所得水準에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職業形態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教育水準은 職業階層이나 所得層에 有意味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所得과 正의 相關關係를 갖고 位階지워진 職業階層構造에 教育水準은 直接的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在日 濟州僑胞의 경우는 教育水準이 階層體系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리의 一般的인 假定이 否認된다고 하겠다.

〈表 11〉 教育水準別 所得

月所得(₩)	19만원	20~39	40~59	60~79	80~99	100만원	무응답	計
教育	이 하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이 상		
國卒이하	2 (20.0)	2 (20.0)	1 (10.0)	—	—	3 (30.0)	2 (20.0)	10 (100.0)
中學이상	15 (35.7)	5 (11.9)	9 (21.4)	1 (2.4)	—	4 (9.5)	8 (19.0)	42 (100.0)
高卒이하	7 (16.7)	9 (21.4)	4 (9.5)	1 (2.4)	1 (2.4)	7 (16.7)	13 (31.0)	42 (100.0)
專門學校 이 상	—	—	—	—	—	—	2 (100.0)	2 (100.0)
무 응 답	—	—	—	—	—	—	—	—
計	24 (25.0)	16 (16.7)	14 (14.6)	2 (2.1)	1 (1.0)	14 (14.6)	25 (26.0)	96 (100.0)

그러면 이제 이상에서 論及한 階層構造에 관련지어 그 階層別 少數集團意識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앞 章(Ⅲ 參照)에서 우리는 在日 濟州僑胞의 少數集團意識에 대하여 그들의 配偶者 選擇에 대한 態度나 子女問題에 대한 態度 및 戰時의 參戰態度에서 이를 推論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하여 配偶者 選擇에 있어서의 態度를 셋으로 나누어 보았다. 즉 少數集團意識의 表現이라 볼 수 있는 「꼭 韓國人」을 택하려는 태도, 그 意識의 結晶으로 볼 수 있는 「인종 불문」의 태도, 그리고 中立的 태도인 「모르겠다」와 「무응답」이 그것이다. 子女問題에 있어서는 「일본인으로부터의 差別待遇」나 「母國語 喪失」을 그 問題點으로 드는 경우에 이를 少數集團意識의 表現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戰時參戰態度에 있어서는 「즉시 參戰」의 태도는 「간접 지원」의 태도 보다, 「간접 지원」의 태도는 「방관」의 태도 보다 더 강한 少數集團意識의 表現일 것이고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中立的 태도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입장에서 在日僑胞의 階層構造와 小數集團意識 사이의 相關性을 알아 보기로 한다.

<表 12> 職業別 配偶者選擇 태도

배우자 職業	(A) 꼭 한국인	(B) 인증 불문	일본인	백 인	모르겠다	무응답	計	$(\frac{A}{B} + 0) \times 100$
企 業 人	4 (66.7)	—	—	—	2 (33.3)	—	6 (100.0)	200.3
手 工 業	9 (64.3)	3 (21.4)	—	—	2 (14.3)	—	14 (100.0)	180.1
商 業 (販賣·서 어비스)	10 (66.7)	2 (13.3)	—	—	3 (20.0)	—	15 (100.0)	200.3
自營業(業 種未詳)	5 (71.4)	1 (14.3)	—	—	1 (14.3)	—	7 (100.0)	생략*
專 門 技 術 職	4 (100.0)	—	—	—	—	—	4 (100.0)	∞
事 務 勞 務 職	18 (56.3)	9 (28.1)	—	—	3 (9.4)	2 (6.3)	32 (100.0)	128.5
其他(職業 未詳)	7 (70.0)	1 (10.0)	—	—	2 (20.0)	—	10 (100.0)	(생략)*
無 職 (失業者)	6 (75.0)	2 (25.0)	—	—	—	—	8 (100.0)	300.0
計	63 (65.6)	18 (18.8)	—	—	13 (13.5)	2 (2.1)	96 (100.0)	190.6**

* 職業未詳인 경우와 自營業(職業未詳)인 경우는 어떤 직업분류에 들어갈 것인지 알지 못함으로 이를 이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이 수치는 평균지수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表 12>에서 配偶者選擇 태도를 보면(業種未詳의 自營業과 職業未詳의 경우 除外): (1) 少數集團意識인 「꼭 한국인」이라는 태도는 專門·技術職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失業者→企業人和 商業→手工業 順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事務·勞務職의 경우에 가장 낮다. (2) 少數集團意識의 결핍인 「인증 불문」의 태도는 事務·勞務職에서 가장 높고, 다음에 失業者와 手工業→商業 順으로 더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專門·技術職이나 企業人인 경우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3) 中立的 態度에서는 企

業人이 가장 높고, 다음에 商業→手工業→事務·勞務職의 順이며 專門·技術職과 失業者의 경우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內容을 職業階層別로 比較 檢討하기 위하여 階層別로 非少數集團意識(「인종 불문」과 中立的 態度)을 100으로 하는 少數集團意識의 指數를 만들었다.(表12의 「 $(A/B + C) \times 100$ 」欄 參照)

그 指數를 比較해 보면 專門·技術職인 경우에는 比較의 次元을 넘어서서 少數集團意識이 가장 높다. 다음이 失業者가 상당히 높은 指數를 나타내고 있고, 企業人和 商業의 경우 平均指數(190.6)를 약간 웃도는 선에서 그 意識이 높은 편인데 대해서, 手工業者는 平均指數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그 意識이 낮은 편이고, 事務·勞務職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있다. 少數集團意識이 높은 層에서 낮은 層으로 그 順序를 나열해 보면, 專門·技術職, 無職(失業者), 企業人和 商人, 手工業, 끝으로 事務·勞務職으로 나열된다. 이러한 在日 濟州僑胞의 少數集團意識의 정도는 그 階層位階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즉, 失業者를 제외하면 대체로 말하여 階層構造上 높은 層일수록 少數集團意識이 높고, 낮은 層일수록 낮다. 단 例外的으로 階層構造上 最下層인 失業者層은 少數集團意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不利한 階層狀況 때문에, 內的·外的인 少數集團意識 發生要因이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서 오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들의 不利한 社會的 地位는 支配集團의 差別的 待遇를 보다 민감하게 수용할 가능성이 크고 祖國에의 鄉愁心을 더욱 크게 하리라 보는 것이다.

配偶者選擇의 태도에서 본 바와 거의 같은 現象이 戰時參戰態度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職業階層上 높은 階層일수록 戰時參戰態度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表 13>에서 參戰態度의 항목 중 「즉시 참전」과 「간접 지원」을(前者가 後者보다 강한 태도임은 물론이지만) 같이 묶어 少數集團意識의 表現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그 외의 非少數集團意識을 100으로 하는 指數로 나타내었을 때 「 $(A/B + C) \times 100$ 」欄과 같다. 이 指數의 크기에 따라 職業階層의 順序를 指數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나열하면 專門·

<表 13> 職業別 參戰태도

職業	참전태도	(A)		(B)	(C)		계	(A/B + C) × 100
		즉시 참전	간접지원	방 관	모르겠다	무응답		
企 業 人	—	—	6 (100)	—	—	—	6 (100.0)	∞.
手 工 業	—	—	10 (71.4)	1 (7.1)	3 (21.4)	—	14 (100.0)	250.5
商 業 (販賣·서어비스)	1 (6.7)	12 (80.0)	—	—	2 (13.3)	—	15 (100.0)	651.9
自營業(業種未詳)	—	—	7 (100.0)	—	—	—	7 (100.0)	(생략)*
專 門 · 技 術 職	1 (25.0)	3 (75.0)	—	—	—	—	4 (100.0)	∞
事 務 · 勞 務 職	3 (9.4)	19 (59.4)	6 (18.8)	3 (9.4)	1 (3.1)	—	32 (100.0)	219.8
其 他(職業未詳)	1 (10.0)	7 (70.0)	1 (10.0)	—	—	1 (10.0)	10 (100.0)	(생략)*
無 職(失業者)	2 (25.0)	5 (62.5)	—	1 (12.5)	—	—	8 (100.0)	708.0
計	8 (8.3)	69 (71.9)	8 (8.3)	9 (9.4)	2 (2.1)	—	96 (100.0)	405.0**

*, ** : (<表 12> 참조 할것)

技術職과 企業人, 失業者, 商業, 手工業, 事務·勞務職으로 順序지을 수 있고, 이는 配偶者選擇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失業者層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階層構造上 上位層으로 갈수록 少數集團意識은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Ⅵ. 結 論

在日 濟州僑胞는 대체로 日帝植民統治下에서 渡日 定着한, 一·二世 들로서, 解放後 歸還한 者가 다른 地方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면 日本生活에 보다 適應的이었다고 생각 된다. 그들 대부분은 그 渡日動機가 就業機會의 포착에 있었으며 주로 大阪, 東京 등 都市圈에 살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少數集團 (minority group) 으로서의 性格을 갖는다.

(1) 渡日 定着過程을 통하여, 억압된 被支配의 상태하에서 不利한 差別待遇를 받아 왔다.

(2) 그러한 集團의 共通의 狀況을 意識하고 있다. 즉, 少數集團意識이 강하다.

(3) 血統性이 繼承·維持되고 있으며 적어도 意識上으로는 集團內婚의 경향이 농후하다.

한편, 다음과 같은 特徵을 보이고 있다.

(1) 世代가 거듭될수록 少數集團意識이 弱화되어 가는 傾向인 점으로 보아서, 少數集團의 類型上 同化 (assimilation) 의 方向으로 움직이는 集團인 것으로 보인다.

(2) 在日 韓國僑胞는 日本內의 外國人中 絶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日本內의 單一 少數民族集團의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集中的인 差別待遇를 받을 可能性이 크다. 在日 濟州僑胞는 在日 韓國僑胞의 一部임으로 같은 狀況下에 놓여있는 少數集團이라 할 것이다.

그 階層構造에 있어서 보면, 企業人과 專門職을 最上層으로, 失業層을 最下 貧困層으로 하고, 그 中間領域에 대강 商人層, 手工業者層, 事務·勞務職層의 순서로 配列할 수 있는 五分法的 階層構造가 在日 濟州僑胞社會에 形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少數集團意識도 失業者의 경우 (그 意識이 企業人과 專門職 다음으로 높은 水準이다)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러한 階層構造에 준하여, 그 上位階層에 해당될수록 그 意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階層構造에 있어서 各 階層의 比重은 事務·勞務職이 상당히 높아서 33.3%에 이르고, 專門職은 제일 낮아서 4.2%에 불과하다. 그리고 商人層과 手工業者層은 15% 전후로 비슷하고 企業人이 6.3%, 失業者層이 8.3%이다. 그리하여 在日 濟州僑胞의 階層構造는 日本 全國水準에 비해서 대체로 舊中間層이 많고 新中間層이 적으며, 失業者 등 下位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産業社會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後進的이고 不利한 階層構造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在日 濟州僑胞들이 그 被雇傭機會에 있어서 상당히 不利한 立場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결국 日本內의 少數集團에 대한 差別的 待遇의 결과라 할 것이다.

日本은 開放社會로서 少數集團에 대한 制度的 差別을 否認할 것이며, 在日 濟州僑胞들은 스스로 階層上 낮은 地位集團임을 認定하려 들지 않을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少數民族集團으로서의 差別待遇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를 僑胞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少數集團은 캐스트(caste)와 같은 性格을 띠고 있어서 全體 社會階層內에서 差別的인 部分階層構造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形式上 같은 階層地位에 있다 할지라도 少數集團에 있어서의 地位는 支配集團의 그것에 비하여 相對적으로 劣勢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在日 濟州僑胞의 階層構造는 그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 때문에, 外面上 形態 보다 全體的으로 下向調整된 水準에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外面的으로도 在日 濟州僑胞의 階層構造는 日本의 그것에 비하여 不利한 것이지만, 그 少數集團의 캐스트的 性格 때문에 外面上의 形態 보다 낮은 水準으로 評價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